

종교화가가 아닌 종교화가

현대 회화의 수도사 마크 로스코

인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만물 중에 종교를 갖고 있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물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인 것이다. 제도권 종교에 귀의하지 않은 범신론 혹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주적 자연의 무서운 현상에서는 몸을 움츠린다. 우주의 신비는 현상 그대로 종교적 신비에 다름이 아니다. 뒤집어 보면 무신론도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본질과 형태는 모두 같다. 인간의 오감은 전인류가 소유한 공통 사항이며 종교심 또한 인간이라면 모두 공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초세기 이콘화부터 중세 고틀머리 르네상스를 지나 바로크까지의 위대한 종교화를 대충 보아왔다. 그들의 위대한 성취는 특히 가톨릭 미술의 숭고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감동을 준다. 초세기 종교적 상징 미술에도 자연을 대상화했지만 그리스도교 종교화도 인간과 신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뿌리에서 다른 가치를 뽑은 이슬람교는 신과 인간을 대상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성상화가 용납이 안된다. 유대교에서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는 이유와 일맥 상통한다. 신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에 두려는 인간의 교만을 미리 차단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제도권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특별한 신념으로 인간을 아꼈다.

워싱턴 디시에 필립스 컬렉션 뮤지엄이 있다. 거기에는 로스코룸이라는 작은 공간의 갤러리가 있는데 4면에 벽에 4점의 현대 화가 '마크 로스코'의 대형 작품이 있다. 이공간에는 여덟 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다. 명상의 시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색면화가 마크 로스코(1903-1970)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색채나 형태나 그 밖의 다른 것들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비극, 황홀경, 운명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 가진 것과 똑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는 당연히 유대교인이었다. 청년 시절



Mark Rothko (1903-1970)

유대교 회당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유대교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 반유대주의 경향이 강했던 20세기 중엽 미국에서 유대인 화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그는 이름까지 바꾸는 우여곡절 끝에 추상표현주의의 잭슨 폴록과 함께 당대 뉴욕 화단을 풍미했다. 잭슨 폴록이 액션 페인팅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는 단층적 색면 화가로 다른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작품은 인쇄 도판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단지 외형만 보여줄 수 있다. 어쩌면 그러한 한계가 이 작가의 종교적 내면을 나뉠 수축하기가 쉬운 것도 같다. 그의 작품은 거의가 한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그림이다. 그는 그의 그림을 항상 어두운 실내에 걸리기를 원했고 작품을 보는 거리도 45cm 를 유지하라고 권한다. 대형 화면을 한 눈에 힐끗 보기를 원치 않았다. 대부분의 관객은 그의 작품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무엇을 표현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와 합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그가 말 한대로 우리의 모든 욕망과 환희 희비극, 그리고 뭘지 모를 슬픔이 침잠되어 있다. 그의 작품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른다. 70%의 관객이 억누르기 힘든 비애를 느끼며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 까지 한다. 화면에 분할된 갈리는 일반적 색상의 칼러가 아니다. 중첩되고 번진듯한 색조를 관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칼러의 배열만으로 이토록 초현실적이면서도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콘화 앞에서 오랜 명상 끝에 다다른 감정과 흡사하며 사순시기 수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과도 유사하다. 마크 로스코는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그의 작품만큼은 예술론에 나오는 보편적 카타르시스를 훌쩍 뛰어넘어 아브라함 종교를 근원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묵상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는 뒤를 이어 새롭게 출현한 전위 미술인 팝아트를 혐오했으며 신진 화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남을 두려워하였고, 또 극심한 우울증으로 안타깝게도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링으로 검색하시고 기회가 닿는대로 뉴욕 'MOMA'에 가서 그의 작품을 감상하시기를 적극 권유합니다.

글/김웅배 안드레아

연중
제 32주일
2023년
11월 1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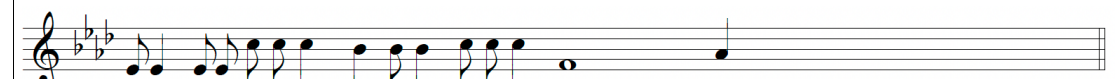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열 처녀의 비유〉 피에테르 리사에르트, 1600-1620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지혜서6,12-16
화답송 시편 63(62),2,3-4,5-6,7-8(© 2c 참조)



후렴.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4,13-18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음 마태오 25,1-13
성기번호 입당 21 봉헌 217,512 성체 157, 172 파견 83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김순분(안나) - 오옥자(데레사),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박재영(요아킴) 가족, 박 스테파노 가족, 썸머셋 구역
- 선점환(마리아) - 가족, 어부들의 마을
- 이금주(베드로) - 가족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한석희(빈첸시오) - 가족, 김순옥(올리아)
- 하정수, 김덕양, 하순애, 김광수(야고보), 김길례(빌리자다), 김용욱(레오), 김복순(유리안나), 김용배, 김장섭, 김용정 } 가족
- 몬시뇰 Robert Zamorski - 이대우(베드로) 부부
-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 사랑하을 어머니Pr. 바다의 별 Pr.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성낙철(안드레아), 성경숙(아가다) 가정 - 이막동(아네스)
- 염기선(베드로) - 한상철(빈첸시오)
- 신진희(실비아) 가족 - 송진영(마리스텔라)
- 이나은(클라라) - 송진영(마리스텔라)
- 황태진(필립보), 황옥자(데레사) 가족 - 김순옥(올리아)
- 김영필(안토니오) - 백상현(요셉) 가족
- 박재영(요아킴) - 썸머셋 구역
- 박락준(베드로) - 이보현(요안나), 손영수(유스티노), 나채국(제노), 송진영(마리스텔라), 문마빈(비오) 가족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8명)..... \$1,192
- 교무금.....\$620
 - 김영필(11-12) 오용덕(9-12) 김삼식(11-12)
 - 안정자(11)
- 감사헌금.....\$1,200
 - 익명(\$400) 익명(\$300) 박화성(\$5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 정수지(아네스) 송희수(글라라)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2차 헌금

- 11월 12일: 유타리티

친교 봉사 일정

- 11/19썸머셋 • 12/17 에디슨 • 1/21 올드브릿지

11월 썸머셋 구역 빵과 포도주 봉헌자

- 11/12 이대우, 이재성 • 11/19 박병태, 조현실
- 11/26유병기, 유용희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주소록 갱신을 위한 양식을 배부합니다. 작성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통합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수요일) 저녁 7시 경당

4/4분기 전체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반석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 11월 18일(토) 오후 12시 친교실

럿거스 구역 모임(구역장: 김세현 스텔라)

-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노스브런스릭 구역 모임(구역장: 변인순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 11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올드브릿지 구역 모임(구역장: 박화성 헬레나)

- 일시 및 장소 : 11월 26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메타천 구역 모임(구역장: 허정 아나스타시아)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구역장 연락처 : 732-718-4569

유스그룹 Bake Sale

-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음료가 제공됩니다.
-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개 본당(에디슨,이튼타운,프린스턴) 합동 레지오 단원 영성 일일 피정

- 지도 : 장재명 파트리치오, 레지오 교육협의회 지도신부님
- 일시와 장소: 11월19일(일) 오후 3시~5시 30분 OLM 성당 친교실
- 대상: 레지오 전 단원(행동/협조)
- 교육시간(오후 3시) 이전까지 “마더 데레사” (올리비아 핫세 주연) 영화를 친교실에서 관람할 예정입니다.

Holy Name Society 주관 가을 50/50 Raffle 행사

- 본당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한 50/50 Raffle 행사 안내문과 티켓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로 티켓을 받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추첨 일시 및 장소 : 11월 18일(토) 오후 4시 미사 후 친교실

레지오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대건회/ 야고보회 송년 모임

- 일시 및 장소 : 12월 16일(토) 오후 5시 친교실

2023 성탄 맞이 성가/크리스마스 캐롤/ 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25일(월) 성탄 미사 후 친교실
- 구역별 2인이상 참가(독창 불가)
- 성가/크리스마스 캐롤/생활성가/신앙 관련 건전 가요에 한하여 구역별로 1곡 경연
- 시상: 1/2/3등 및 특별상

제1독서: 지혜서6,12-16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 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 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맞맞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 1서 4,13-18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과 앞서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태오 25,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향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